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실크로드여행사
불교성지순례 전문
02)720-9600

佛敎新聞

행복한 순례의 길!
MAYA TOUR
마야투어
02)722-9001
www.MAYATOUR.kr
머물지 않음으로 그 이름을 나그네라 한다 - 능엄경 중에서

1960년 1월 1일 창간 주2회 발행
불기 2558년 11월 22일 (2014년 / 단기 4347년 음력 10월1일)
i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8 제3060호 토

통합종단 출범 후 최대불사로 주목받고 있는 '총본산 성역화 불사'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추진위는 지난 17일 출범식 직후 서울 조계사 견지동 45번지 일대 팔방 청정도량 결계의식을 봉행하며 성역화불사의 원만회향을 발원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종단사상 최대불사 '총본산 성역화' 첫 발

11월17일 추진위 출범

정·관계 학계 인사 동참

10·27역사관 치유시설 템플스테이체험관 등 건립

조계사 100억원 전달 정신문화 창달 중심도량 사회통합 새 전기 '기대'

조계종이 통합종단 출범 후 최대 불사가 될 '총본산 성역화 사업'을 이끌어 갈 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며 대작불사의 첫 발을 내딛었다. 총무원은 지난 1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총본산 성역화 불사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봉행했다. 이날 진제 종정예하를 증명으로 원로의장 밀운스님과 중앙종회의장 성문스님, 전국 교구 본·말사 주지,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강창일 국회 정각회장(새누리당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해 성역화 불사의 원만회향을 기원했다.

진제 종정예하는 이날 동영상을 통한 치사에서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대작불사는 불자는 물론 온 국민의 정신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세계를 하나 되게 하는 중심도량으로 비상하게 될 것"이라며 "지혜와 자비의 법륜이 더 넓고 깊고 크게 구르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출범식은 총본산 성역화 불사에 포함돼 있는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조성사업'과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사업계획이 일정 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종단의 굳건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사업의 성공적인 회향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사 추진위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위원장으로 한 추진위와 총도감을 맡고 있는 지현스님을 위원장으로 한 집행위, 모연위 등으로 꾸려졌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인사말에서 "34대 집행부는 조계사 일대를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서원하고 힘을 모아 한 걸음씩 내딛고 있다"면서 "이에 전통문화의 시대적 조화로움과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불교계, 정관계, 학계 등을 망라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오늘 역사적인 출범을 맞게 됐다"고 의미를 밝혔다.

총본산 성역화 불사는 1단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단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0년에 걸쳐 3500억 원 이상 예상이 소요되는 통합종단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불사다. 견지동 45번지 일대 토지면적 2만8577㎡ 규모에 달하는 부지 안에는 10·27 역사교육관과 치유시설이 설립되고, 템플스테이체험관 등이 새로 들어서게 된다.

이는 2008년 3월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사업이 추진되면서 시작됐다. 이어 2013년 8월 종단과 서울시가 업무협약을 통해 견지동 일대에 대한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구체화 됐다. 또 지난 3월 서울시에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사업 적정성 검토에 이어 다음 달 내년도 관련 예산이 확정될 예정이다.

총본산 성역화불사 총도감 지현스님은 "성역화 불사는 종단과 중앙정부, 서울시가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해 함께 추진하는 대작불사로 10·27법난에 대한 불교계 명예회복과 이를 통한 국민인권 신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의미도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건축물 기본계획, 토지매입, 설계, 시공자 선정 등 단계적으로 불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창일 정각회장은 "성역화 사업은 10·27법난 특별법과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 공공사업으로 일각에서 제기된 특혜지원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만큼 이를 흠집내는 일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조계사 주지 원명스님은 성역화불사 기금으로 100억 원을 전달하며 불사에 힘을 보탰다. 출범식 직후 팔방 청정도량 결계의식을 봉행한 후 참여 대중과 함께 도량을 행진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2014 달라이라마 한국인 법회 현장
6~7면

"종단 스님 전부 복지혜택"

중앙종회, 승려복지법·법인관리법 등 개정

중앙종무기관 내년예산 원안 480억원 의결

종단 승려복지법이 65세 이상 스님에게 지급하는 수행연금을 폐지하고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전원에게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정된다. 이로써 "출가에서 열반까지 책임진다"는 종단의 승려복지 실현의지가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스님)는 지난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00회 정기회에서 '승려복지법 전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결계신고를 마치고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스님들로 확대한 가운데 국가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특히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진료비를 비롯해 장기요양급여비, 국민건강보험료 등 수행에 가장 밀접한 의료비 지원에 중점을 뒀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단계를 거쳐 전면 종단이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한 지원대상은 8200여 명으로 파악되며 비용은 종단과 교구가 절반씩 공동으로 부담한다. 총무부장 정만스님은 "내년 4월부터 지급하기로 한 수행연금을 폐지하고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종단 스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정한 것"이라며 "특히 국가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된 의료비 지원에 중점을 뒀고 노후에 4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사찰보유법인의 임원구성에 재가자 참여를 허용하고 미등록법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이날 정기회에서 통과됐다. 또 18일 열린 정기회에서 일반회계 230억여 원과 특별회계 240억여 원을 포함해 모두 480억여 원으로 편성한 '불기 2559(2015)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관련기사 3면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삶의 위안이 되었다면 기뻐"

매일 아침 산사에서 보내오는 '일운스님의 마음편지'가 500일을 넘어섰다. 울진 불영사 주지 일운스님은 지난 14일 500번째 마음편지를 2200여 명에게 보냈다. 그동안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보냈지만, 지난 7월부터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편지를 발송하고 있다.

일운스님은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신도들에게 마음을 다스리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력을 실천하다보니 어느새 500번째 마음편지를 보내게 됐다"면서 "산사에서 보낸 마음의 편지가 삶의 위안이 되었다면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일운스님이 마음편지를 보내기 시작한 것은 2011년 6월11일부터다. 만일염불결사회원들에게 부정기적으로 보냈는데, 산사의 향기를 담은 편지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아 2013년 6월6일부터 매일 보내기 시작했다.

지난 11월14일 500번째 마음편지에서는 "생각을 일으키는 원인은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다"면서 "내가 지금 내 마음 밭에 무슨 씨앗의 종자를 심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기 바란다. 씨는 심은 대로 싹이 트고 자라난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마음편지는 각종 불교경전에 나오는 법구(法句)나, 채근담 등 동양고전의 좋은 글귀에서 스님이 선별한 내용을 담는다. 여기에다 스님의 생각이나 당부를 살짝 덧붙여 더욱 친근하게 다가온다.

일운스님은 "마음편지를 받아보고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면서 "물질만 좇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기쁜 일"이라고 보탰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2015 불교신문 신춘문예 공모 … 12월10일까지 단편소설 평론 동화 시·시조